

# 광주 첫 e스포츠 경기장 조선대에 11월 개관

시, 해오름관 리모델링  
국·시비 60억원 들여  
주·보조 경기장·PC 존 설치

이르면 올 11월 조선대에 광주 첫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들어선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을 리모델링해 e스포츠 상설경기

장을 만들기로 하고 조만간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지난해 조선대와 업무협약을 갖고 매출액을 균분하는 대신 향후 10년간 해오름관을 무상 사용하기로 했다. 경기장은 주 경기장 1000석, 보조 경기장 150석, PC 존 등을 갖추게 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서 부산, 대전과 함께 선정돼 국비와 시비 30억원씩 모두 6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장은 시공, 장비 구축 등을 거쳐 오는 11월 개관할 예정이다. 조선대는 공간을 무상 대여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맡게 된다. 수도권에 밀집한 e스포츠 인프라를 분산하고 아마추어 동호회 활동 등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했다. 광주시는 수천~수만 명이 몰리는 메이저 대회를 개최하기에는 시설이 충분치 않은 만큼 동호회, 대학생 리그 경기장이

나 훈련장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운영·관리 인력 23명의 인건비, 시설 운영비 등 연간 10억원 이상 예산은 광주시가 부담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기장 자체로 수익이나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기보다 e스포츠 시장 확대에 대응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의 사업"이라며 "건강한 게임 문화가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동구의 인물' 22명 특별전 14일 광주시 동구는 지역 출신 또는 동구를 무대로 활동했던 인물의 이야기를 담은 '동구의 인물' 발간을 앞두고 책 속에 담긴 22명의 인물을 소개하는 특별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동구의 인물에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헌신한 오방 최홍중 목사부터 인권변호사 홍남순, 시인 문병란,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청년 이한열 등 3·1운동부터 6월 항쟁까지 활동한 근현대사 인물 22명이 선정됐다.

## 서구, 식품업소 시설현대화 식품진흥기금 저금리 대출

광주시 서구가 식품위생업소 위생시설 현대화를 위한 식품진흥기금 저금리 대출을 실시한다. 사업 대상은 서구 내 일반음식점이며 영업장 면적 100㎡ 미만의 소규모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비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업소당 1000만 원부터 최대 3억 원까지 연 1~2% 수준의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 동안 상환하면 된다. 신청과 문의는 서구청 보건위생과로 연락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복지 신년인사회 이용섭 광주시장이 14일 오전 남구 라페스타에서 열린 '2020년 광주복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박미정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김천수 광주사회복지협의회장, 전성남 광주사회복지협의회장 등 참석자들과 사회복지혁신 선포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건축·소방·토목 등 24명 31일까지 추가 공개 모집

광주시 서구가 안전관리자문단을 추가 공개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건축 8명·토목 2명·소방 9명·전기 2명·가스 2명·승강기 1명 등 총 24명이며, 임기는 2021년 8월 18일까지다. 지원자격은 ▲관련 분야 대학교수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 등이다. 위촉된 안전관리자문위원은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대한 자문 역할과 현장 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접수는 오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 양식을 작성해 서구청 안전총괄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담당자 전자메일로 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설 앞두고 진출입로·시립공원묘지 주변 도로조명시설 점검

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의 교통 안전을 보장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도로 조명시설을 대상으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주요 간선도로변, 시립묘지공원 등 귀성객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가로등 점·소등 및 부적합 도로조명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점·소등 상태, 조도상태,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여부, 미관저해 시설 등이다. 점검에서 확인된 부적합 시설물은 즉시 개·보수에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가로등이나 야간에 점등되

지 않는 등 불편사항은 각 구청 가로등 담당부서와 광주시 도로과(062-613-4740-4743)로 연락하면 조치할 예정이다. 임남진 광주시 도로과장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조명시설을 집중 점검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 광주시 가족친화인증기업 32곳 선정 경영지원금·컨설팅 등 12개 인센티브

광주시는 가족친화 인증기업 32곳을 선정했다. 광주시는 14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2019년 신규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판 전수식'을 개최하고 신규로 선정된 22곳에 대해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판을 수여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거해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

도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한다. 광주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2019년 가족친화인증기업 공모에는 신규 28곳(중소기업 21곳, 공공기관 2곳)과 재인증 10곳(중소기업 6곳, 공공기관

4곳) 등 총 38곳이 신청했다. 중앙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신규 22곳, 재인증 10곳 등 32곳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총 81곳으로 늘어났다. 광주시는 신규 인증 및 재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가족친화경영지원금을 비롯해 전문컨설팅, 교육 등 12개 인센티브와 가점을 부여한다. /김형호 기자 khh@

##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다음달 7일까지 12회 지역별 진행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0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1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시행한다. 지역농업인 70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지역 농협 등에서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1년 농사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에 달린 농정시책을 알리고 새로 개발된 신기

술과 신제품 등을 안내해 농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분야별 전문과정은 친환경 배, 원예작물, 약용작물, 친환경 미생물 활용 등으로 구성했다. 최신 연구 동향과 영농 현장의 문제점·애로사항 해결 등 분야별 핵심사항을 편성 운영한다. 특히 2020년에 달라진 농업시책을 안내하고 지역별 품목 및 전문과정 교육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다. /김형호 기자 khh@

## 동구합창단 단원 신규 모집...31일까지 접수

광주시 동구가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동구합창단 단원을 신규 모집한다. 14일 동구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동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지역민 중 성악에 자질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모집 부문은 남성성은 테너·베이스, 여성성은 소프라노·알토 등이며 신청 접수는 오는 31일까지다. 합단을 희망하는 지역민은 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입단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동구청 문화관광과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남녀노소 합창단원을 응원하기 위한 이번 모집에 열정을 갖고 참여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합창단은 1996년 10월 창단 이래 동구를 대표해 정기 연주회 및 국내외 경연대회에 참가하며 애환심과 구민 화합에 기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북구, 주택가·상가밀집지역 교통 불편 해소

광주시 북구가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차난 등 교통불편 해소에 나선다. 북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차 출제'와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을 확대하고 주차공간 부족 지역을 선정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민 교통 불편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4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 7월부터 4개 구간에 시행하던 가변적 주차 출제제를 올해는 오는 6월까지 주민설명회와 관련 절차를 거쳐 삼각동 고령로-31사단, 매곡동 농협하나로마트-굽네치킨매곡오치점 등 3개 구간을 추가하고 일곡동 일곡도서관 입구 구간에 한쪽 주차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상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	---------------	---------------	----------------	---------------	---------------